



가톨릭마산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가정 성화 주간)

2023년 12월 31일
제2598호



천주의 성모 마리아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집회 3,2-6.12-14 또는 창세 15,1-6; 21,1-3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 2 독 서 콜로 3,12-21 또는 히브 11,8,11-12,17-1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루카 2,22-40 또는 2,22,39-40
영 성 체 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오승수 시몬 신부
교포사목(미국 디트로이트)

불완전이라는 온전함

성가정이라는 말이 있다.

가톨릭 교우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말 가운데 하나이다. 혼인성사를 받고 가톨릭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은 그들 나름 성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고 살아간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듯 녹록지가 않다.

지금 본인은 미국의 디트로이트 성김대건 한인성당에서 사목을 하고 있다.

한 날은 어느 구역의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을 했다. 그 구역은 세대들의 구성에서 나이차가 거의 없어 보였다. 심지어는 본인과 크게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부들의 구성이었다. 그래서 한동안 내가 궁금해했던 것을 물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구성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부부의 사랑이란 뭔가요? 누구는 정으로 산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누구는 의리로 산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표현이 완전히 진심은 아니신 거죠? 오래 살다 보면 사랑이 깊어지고 뭐 그런 건 없나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

돌아오는 대답이 상당히 솔직하고 진심 어려서 고마웠던 기억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로 실수로 몸이 닿았는데 서로 사과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 우리 부부의 관계를 정의할 단어를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답을 들으면서 본인은 깨달았다. 부부 사랑도 결국 노력이라는 것을. 그런 가운데에서도 서로 간의 신의를 지켜가겠다는 다짐이 부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마냥 좋아서 노력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좋기만 하다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세월의 권태감을 이기고 서로 간의 사랑을 신의로써 지켜갈 때, 그런 부부의 사랑이 깊어가는 것은 아닐까?

본인이 다시 물었다.

“매체를 보면 노부부가 되어서 손을 잡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답이 그랬다.

“아마도 옆에 아홉은 최근에 재혼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교우들이 그 옆에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들었다. 혼인성사 안에서 살아가는 부부뿐만 아니라 신품성사 안에서 살아가는 사제들도 아마도 거의 모두가 자각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받은 성사를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인간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결국 그 부족함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또 이렇게 한 가정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란 존재는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기 비움의 자세일 것이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나의 부족한 자세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느님 자비의 자리가 된다.

사제로 아주 조금 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 교우에게 저주지 못하면 사제가 행복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

부부도 그렇지 않을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저주지 못한다면 행복한 부부생활은 요원할 수도 있겠구나. 게다가 그냥 지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진심으로 나를 죽이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서로가 택한 삶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본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하느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빌어본다.

“내가 받은 성사를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인간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결국 그 부족함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또 이렇게 한 가정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024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기도 속에 우리 교구 부제 1명이 사제품을, 2명의 신학생과 삼위일체수도회 수사 1명이 부제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들이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참된 목자의 길을 따라 일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사제단

- **일시:** 2024년 1월 10일(수) 14:00
- **장소:**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
- **주례:** 수원교구장 이용훈(마티아) 주교

사제품



김성근 대건 안드레아
첫미사 월남동성당
2024년 1월 11일(목) 19:30



임상영 토마스 아퀴나스
사파동본당



박명제 대건 안드레아
고성본당



김지승 알렉산델
삼위일체수도회

부제품

교구 신학생 동계연수



교구 신학생 동계연수가 성소국(국장: 최문성 마르코 신부) 주관으로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마산가톨릭교 육관에서 실시되었다. 연수는 교구청에서 풋살 경기로 시작하여, 교육관에서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와의 만남, '사제의 글쓰기' 강의, 체험 나누기 등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일 년간 신학교, 군대 등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지내다 다시 모인 신학생들은 연수를 통해 친교와 형제애를 나누고, 각자의 마음을 새로이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례에 정성을 다하는 금산성당

이준호 라파엘



금산성당에 도착하면 높은 원기둥 위의 예수성심상이 보인다. 어서 오라며 두 팔로 다정하게 맞이하는 그리스도다. 성전 안으로는 가시관을 쓰고 승천하는 예수님께로 시선이 간다. 본당주보성인인 ‘임마누엘’을 떠올릴 때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 되살아난다. 금세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물든다. 김유겸 베드로 주임 신부와 전·현직 사목회장을 만나보았다. 금산본당은 2008년 12월 29일이 설립일이다. 같은 해 12월 30일에 서품 받은 김유겸 신부는 금산본당에 두 번이나 부임했다 하니, 본당 사랑과 열정을 짐작할 수 있다.

사목의 시노달리타스를 실천

김병구 스테파노 전 회장으로부터 금산본당의 특색을 들었다. 사목 조직의 슬림화가 그것이다. 원래 80여 개나 되던 크고 작은 단체들을 과감히 추려냈다고 했다. 신자들의 입장을 먼저 살핀 것이다. 오랫동안 피로해진 조직의 특성을 진단하고 재정, 시설, 사회복지 분과만 남겼다. 나머지 조직들은 주임 신부가 매개하고 소통하며 도움을 주었다. 사제에게 고생이 될 법했지만, 하던 소임을 하였을 뿐 힘들진 않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구역분과는 사목회 조직에서 빠졌지만, 예비자교리까지 맡으며 원래 하던 일을 충실히 했다. 각각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였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시노달리타스’에 어울리는 모습이었다며 이기성 레오 초대 회장이 덧붙였다. 교우들의 부담을 줄이고 과감하게 실질적 운영을 한 것이다. 몇 년이 지나 이러한 경험은 다른 본당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전례에 정성을 다하는

금산본당은 하대동본당에서 분가했다. 금산에는 본래 가방공소가 있었고, 아파트 단지에 많은 이들이 입주하면서 점차 구역을 확장하였다. 논과 벌판만 있던 곳에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하였고, 진주의 여러 동네에서 모인 신자들의 특성도 달랐다. 초대 회장은 당시 분위기를 들쭉이는 느낌으로 기억한다. 하대동과 망경동 등 성향이 다른 지역과 직업의 신자들이 한곳에 정착하여 각기 경쟁하듯 색깔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점차 활력을 주었고 나은 결과로 작용하였다. 그러길 몇 년, 본당이 안정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시를 회상하며 그들은 초대 주임이었던 백남국 신부를 떠올렸다. 1년 만에 교구청 발령으로 떠나게 되어, 정들었던 신자들의 아쉬움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던 그때였다.



코로나 시기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김유겸 신부가 부임하여 침체하였던 분위기가 올라갔다. 평일미사에 교우도 늘고 주일미사 참례 신자수를 회복하였다. 평일미사의 영성체 때, 밀떡이 떨어져 다시 가져다 줄 정도였다. 사제는 미사 전 고해소에 언제나 일찍 와서 앉아 있곤 했다. 미사 전례와 고해성사에 충실했던 사목에 신자들의 신심도 녹아들었다. 말씀의 전례와 성찬례의 신비에 집중한 게 점차 힘을 발휘하였다는 레오 회장의 설명이다. 주일미사에서도 향을 피워 분향하였다. 말씀의 전례와 성체성사야말로 교회를 살찌우고 먹여주는 본체라는 것이다. 그것이 울림을 낳고 신자들의 마음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였을 것이라며 사목회는 입을 모은다.

특별했던 성지순례와 성모의 밤

묵묵히 전례에 충실하며 신심을 키워온 금산성당이다. 본질에 강조점을 둔 본당만의 특징이다. 그 가운데 성지순례와 성모의 밤이 특별했다고 이진형 이냐시오 사목회장이 말했다. 10월 22일 본당의 날에 충남 금산의 진산성지로 어린이, 어른 포함하여 교우 186명이 다녀왔다. 신해박해의 진원지며 복자 윤지충이 가족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한 곳이다. 사전에 자료를 충실히 조사하고 공부한 덕에, 순례 중에 퀴즈 행사를 진행



하며 알찬 성지순례로 운영하였다. 영성과 힐링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올해 성모의 밤도 특별했다. 미사 없이 '고통과 슬픔의 성모님께 바치는 노래'라는 테마로 운영하였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며 촛불 파도타기를 하였을 때 감동은 극에 달했다. 모두 자신의 고통과 지향을 마주하는 가운데 묵주기도를 바쳤다. 자연스레 힐링과 치유의 시간이 되었다. 성모님의 생애도 영상으로 보고 사제의 교리를 들으며 지적 충만 또한 얻을 수 있었다.

20주년을 준비하며

2012년부터 사목회의 여러 자리를 거쳐 온 이진형 이냐시오는 젊은 회장이다. 예전에 본당의 중추였던 요셉회 어른들을 의지하던 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이제 그들을 보살피는 나이가 되었다. 신자들을 연결하며 어떻게 잘 봉사할 수 있을까 늘 염두에 두고 있다. 더하여 새로운 신자들의 유입이 좀 더 힘을 내어 모자람이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봉사하며, 후회 없는 시간이 되려고 한다. 실제로 금산성당에는 안드레아회로부터 바오로회, 요셉회에 이르기까지 연대와 시스템이 탄탄하다. 데레사회와 모니카회도 마찬가지다. 소리 없이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돈독하다.

20주년을 향하는 본당이다. 한 해 한 해 역사를 쌓는 만큼 맛이 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크다. 좋은 시절을 함께한 공동체는 신앙적으로도 더욱 성숙한 깊이를 자아내게 되길 바란다. 진주의 12개 본당 중에서 신자 수는 중간 정도이지만, 열심히 참가하는 숫자는 두 번째로 많을 것 같다고 이구동성이다. 그렇게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금산성당이다.



※ '본당순례' 원고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취재에 협조해 주신 본당 신부님과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취재해 주신 이준호 라파엘·조정자 이사벨라·황광지 가타리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4년 1월 3일(수)~9일(화) 6박 7일
장소: 성혈 영성의 집

사목협의회장: 장명조(베르나르도)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대철(프란치스코)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상임(소화 데레사)
 총무: 유유정(세라피나)
 재경분과위원장: 김갑식(프란치스코)
 전례분과위원장: 하양숙(첼투르다)
 교육분과위원장: 김가나(아델라)
 시설분과위원장: 송호준(미카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황영구(라파엘)
 청소년분과위원장: 유호석(가스발)

아련한 추억어린 성전

황광지 가타리나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복잡한 심정으로 성전에 앉았다. 미사가 시작되기 전이라 찬찬히 구석구석 부분부분 살폈다. 마음에 저장해야 했다. 제대 왼편 벽에는 '그리스도왕 대축일' 글자 아래 '현 성전과 송별미사'라고 게시되어 있었다. 소식을 들어 알고 왔지만, 붙어 있는 글자들을 보니 또 아린 가슴이 나났다. 이 미사를 끝으로 성전은 헐리게 된다는 것이니.

나는 1979년 봄에 창원으로 와서 용지공소 건물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 후로 가음동성당을 건축하여 1982년 봉헌식을 치르는 과정을 생생하게 겪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들 다미아노와 함께 신앙의 추억을 진하게 쌓았다. 이 성전 안에 콩나물시루처럼 빼곡하게 모여 여름신앙학교를 치르던 때가 있었다. 교사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고래고래 소리 지른 시간들이 있었다. 큰길 건너 아파트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 성당에 이르는 시간들 속에서 아이는 뼈가 굵어 갔다. 우리 가족은 다미아노가 고교시절에 마산으로 이사했다.

마지막 미사가 시작되었다. 사제는 '마지막'이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설렘'을 안겼다.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서 희망이 된다고 신자들을 바라보았다. 자꾸 아리던 내 가슴에 설핏 빛이 들었다. 41년간 이 성전에서 복음이 퍼져나갔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재개발이 필요했다. 이해타산들이 작용하여 순탄치 못한 진행과정을 겪으며 노심초사한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지만 이제 희망의 시간이 왔다.

사제는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기를 바라며, 강론 시간 영상으로 소상하게 새 건축을 설명했다. 온갖 포인트를 달리하여 희망의 성전을 전달했다. 이 미사 이후 임시성전으로 옮겨 2년이 지나, 새 성전으로 드는 광경이 눈앞에 그려졌다. 나는 추억을 길러 올리느라고 아렸던 가슴을 내려놓았다. 내 생의 열정을 태웠던 이 성전의 기억들은 마음속에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기로 했다.

영성체가 끝나자 사제는 제병을 남기지 않고, 감실문도 잠그지 않았으며, 이제 여기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선언했다. 내 가슴에 남겼듯이, 사목위원들은 철거될 성당의 면모를 세세히 빠짐없이 영상으로 담아 보여주었다. 40여 년 전, 이 성당을 짓도록 부지를 기부한 부부가 참석하여, 기적 같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 감동의 박수가 쏟아졌다. 마침내 송별미사는 다름 아닌 감동이 되었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석별의 정 노래를 부르며 비록 눈가에 물기는 맺혔지만, 감동이 서운함을 누르고 희망을 향하게 했다.

이 본당에서 여전히 뿌리를 박고 있는 지인들이 더러 있었다. 청춘일 때 만난 그들이 창원지역에 한 본당 한 본당 세워질 때마다 진을 빼내며 노년에 이르렀다. 또 새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그들에게 특별히 은총이 내려지길 기도했다. 내가 망설임을 접고 마지막 미사에 참석하길 잘했다. 이 성전을 그냥 보냈으면 어쩔 뻔했을까. 나는 멀리 있는 다미아노에게, 그때 그 시절 함께했던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가음동성당 마지막 모습을 사진으로 보냈다.

"진리와 지고의 선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천주교 마산교구 평신도 신앙대학 제28기 모집

지원자격

영세한 지 2년 이상 된
본당 주일 사제의 추천을 받은 자
(만 65세 이하)

모집인원

40명(선착순)

교육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개강일

2024년 2월 3일(토) 2년 과정(1월과 8월은 방학)
매월 첫 토요일 오후 1시45분~주일 오후 4시 교리교사 자격증 발급

교육기간

출입특혜

신앙대학 졸업장

교육과정

2024년도 : 교회론, 구약성경,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 윤리신학, 철학, 한국천주교회사
2025년도 : 교부학, 교회법, 그리스도론, 사회교리, 성사와 전례, 신약성경

등록비

연 620,000(2인실 교육관 숙박비)

등록안내

접수마감 후 자택으로 '입학안내서' 발송

지원마감

2024년 1월 2일
우편 또는 방문 도착분까지

지원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본당 사무실 비치 입학원서
작성 후 사목국 접수

보내실곳

(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목국

문의 : 사목국 055-249-7021~2



천주교 마산교구
CATHOLIC DIOCESE OF MASAN

명례성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미사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드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미사에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1월 1일(월) 07:00 미사 시작

장소: 명례성지 야외제대(신석복 마르코 생가터)

▶야외에서 미사를 봉헌하니 방한 준비를 잘 갖춰 오시고, 미사 후 따뜻한 떡국 나눔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된 피난 살이 1(1사무엘 22-24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이번 순례는 유다 광야 곳곳을 둘러보는 아주 고된 순례가 될 것입니다. 유다 광야는 매우 독특한 지형으로 산과 언덕이 계속 이어지며, 봉우리 사이의 계곡이 깊어서 봉우리 사이를 직접 오갈 수는 없습니다. 유다 광야의 연간 강수량은 100~150mm 정도여서 매우 건조하고 척박한 곳이며, 여름의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기 때문에 생존하기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면 이곳에도 식물이 자라서 가축의 방목도 가능하니 사막과 같은 곳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어 지냈던 곳이 바로 이런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은 갓을 떠나 유다 광야에 있는 아둘람의 굴속에 피신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형들과 아버지 집안 전체가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곤경에 빠진 이들, 빚진 이들, 불만에 찬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 다윗은 사백 명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우선 다윗은 모압의 미즈파로 가서 모압 임금에게 하느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자신의 부모를 보호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다 지방에 머물라는 가드 예언자의 말에 따라 헤렛 숲으로 들어갑니다.

한편,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대한 소식을 접한 사울 임금은 다윗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신하들을 꾸짖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역이 나섭니다. 그는 사울의 목자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다윗이 아히멜렉 사제를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놈의 사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도역의 증언으로 놈의 사제 여든다섯 명과 그 성읍의 주민들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가 아히멜렉의 아들 에브야타르이며, 그가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그를 보호해 줍니다.

다윗의 무리들은 유다 광야에 머물면서 주변 성읍의 주민들을 필리스티아인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가 크일라에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유다인들의 타작마당을 약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주님의 뜻에 따라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크일라 주민들을 구해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잡으려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다윗은 신탁을 통해 크일라 주민들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임을 알게 되자 그곳을 떠나 유다 광야를 전전합니다. 다윗이 지프 광야의 호레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다시 출동합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 그를 격려하고 의형제 계약을 다집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지프인들의 고발로 다윗의 소재를 파악한 사울이 추격해오자 다윗은 마온 광야로 갑니다. 사울이 마온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의 공격 소식이 들려왔고,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떠나 엔 게디 산성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엔 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은 또 부하 삼천 명을 이끌고 그를 잡으러 옵니다. 당시에 사울은 그곳의 한 동굴에 들어가 뒤를 보았는데,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그를 부추겨 사울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자릅니다. 사울은 주님의 기름부음받았이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굴을 나와 제 길을 가자 다윗은 사울을 불러 그가 임금을 해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이야말로 임금이 될 사람이니 자신의 후손들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하였고, 사울은 궁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근거 없는 의심과 불안은 하느님과 하느님의 기름부음받았이에 대한 다윗의 충실함과 대조를 이룹니다. 참된 평화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 김영선 수녀님의 '구약성경 순례' 원고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3년간 집필해 주신 수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